

빅리거 추신수 펄펄 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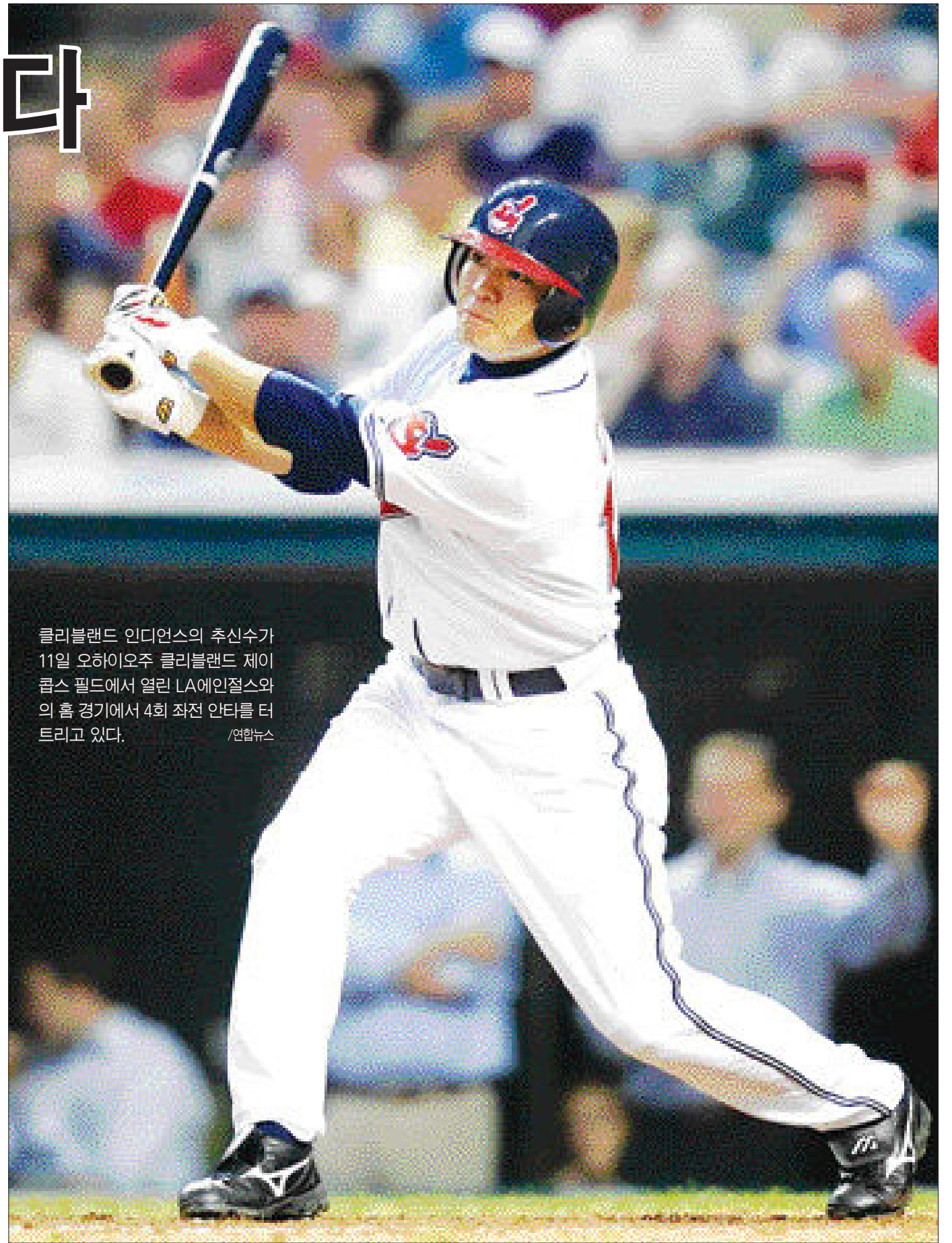
LA 에인절스전 3안타 3타점... 타율 0.340 치솟아

4경기 연속안타·9경기 연속 출루도... 팀은 14-2 대승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앞둔 시즌 같은 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추신수는 11일(이하 한국시간) 오키오 주 클리블랜드 제이콥스 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LA 에인절스와 홈 경기에서 5타수 3안타, 3타점, 1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시즌 타율은 0.310에서 0.340(47타수 16안타)까지 치솟았다. 이를 연속 한 경기 3개의 안타를 터뜨리며 빅리거 데뷔 후 5번째 멀티히트(한 경기에

서 2안타 이상)를 기록했고 4경기 연속 안타, 9경기 연속 출루 행진도 이어갔다. 특히 클린업트리오인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두번째 선발출장한 추신수는 3경기 연속 타점을 올리며 찬스에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추신수는 1회 말 2사 1, 2루서 우완투수 케빈 그렉(28)의 2구째 가운데로 쏠린 시속 150km(93마일)짜리 빠른 볼을 통타, 원바운드로 가운데 펜스를 넘기는 2루타를 때려 2

루 주자 제이슨 마이클스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3회 말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4회 1사 1, 3루에서 좌완 J.C.로메로가 던진 바깥쪽 낮은 볼을 가볍게 밀어쳐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타점을 올렸고 후속타자들의 도움으로 득점에도 성공했다. 추신수는 팀이 11-2로 크게 앞선 5회 1사 1, 3루서도 1루수와 2루수 사이로 흐르는 깊숙한 내야 땅볼을 때려 타점 1개를 추가했다. 클리블랜드는 이날 14-2로 대승하며 2연승을 달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가 11일 오키오주 클리블랜드 제이콥스 필드에서 열린 LA에인절스와 홈 경기에서 4회 좌전 안타를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日 프로야구 무더기 오심... 신뢰 추락

이승엽 안타성 타구·요코하마 한신전 판정 잘못 요미우리, 사무국에 항의서 제출... 한신 등도 검토

두 차례나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홈런과 안타를 강탈해 간 일본프로야구 심판진이 최근 무더기 오심으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요미우리는 지난 9일 야쿠르트전에서 이승엽의 안타성 타구를 플라이 아웃으로 잘못 판정할 것에 대해 10일 센트럴리그 사무국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11일 어처구니 없는 '누(壘) 공과' 오심으로 시즌 19호 홈런까지 빼앗긴 이승엽의 명예를 되찾아 주기 위해 요미우리는 지체 없이 항의서를 전달했다. 요미우리는 이 참에 즐기게 요구해 온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오심의 항연'은 10일에도 계속됐다. 요코하마 시민구장에서 계속된 요코하마 베이스타스-한신 타이거스전. 5회 2사 2루의 요코하마 공격에서 한신의 안도 유야가 이시이에게 플라이아웃 끝에 던진 공은 원 바운드 후 파울이 됐으나 심판

은 볼로 판정했고 한신 포수 야나가 구심에게 거세게 항의하던 중 손으로 구심의 몸을 밀어 제치는 바람에 퇴장 지시가 내려졌다. 그 사이 2루 주자가 홈을 밟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꼬였다. 한신은 항의서와 비디오 판독 결과를 센트럴리그 측에 반드시 제출하겠다고 며칠 악물었다. 10일 야쿠르트-요미우리전에서도 또 심판의 석연치 못한 판정이 있었다. 7회 1사 1, 2루의 요미우리 공격 때 야노의 타구를 잡은 야쿠르트 3루수 이와무라가 3루를 밟고 1루에 송구, 병살플레이를 완성했으나 3루수는 3루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졌으며 세이프 판정을 내렸다. 야쿠르트측은 '비디오 판독결과 분명 아웃이었다'며 센트럴리그에 항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엽은 지난 10일 심판의 오심으로 도둑맞은 안타를 분풀이하듯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린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전서 8회초 상대 좌완 이시이 히로토시의 바깥쪽 직구를 밀어쳐 좌측 펜스를 넘기는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36호 홈런이자 일본 진출 이후 80호로 한·일 통산 404호 홈런으로 기록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지영이 1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 헌트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CN캐나다여자오픈 1라운드 13번홀에서 벙커샷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루키 이지영 “예감이 좋다”

LPGA CN캐나다오픈 1R 5언더 67타 공동 2위

작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CJ 나인브릿지클래식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해 미국 무대에 입성한 새내기 이지영(21·하이마트)가 '맞춤 코스'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궈낼 기회를 잡았다. 이지영은 11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런던 헌트골프장(파72·6천611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CN캐나다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쏴 5언더파 67타를 쳐 선두 앤젤라 스텐퍼드(미국·64타)에 이어 공동2위에 올랐다. 이날 이지영은 평균 288.5야드에 이르는 드라이브샷을 폭발시키면서 15차례 버디 찬스

를 만들어내 코스와 궁합이 제대로 맞았다. 더구나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가 274.6야드에 이르는 장타 덕에 미들 아이언이나 쇼트 아이언, 또는 웨지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어 300야드가 넘는 넓은 그린에서도 28개의 퍼팅만으로 18홀을 마무리지는 것도 선두권 도약의 밑거름이 됐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에 나선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이미나(25·KTF)는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곁들이며 4언더파 68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장타자는 아니지만 정확한 샷을 앞세운 이мина는 페어웨이를 벗어난 것이 단 2차례

였고 그린을 놓친 것도 3차례 뿐이었다.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선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던 '맘언니' 정일미(34·기가골프)도 이미나와 함께 공동 5위로 나서 우승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갖췄다. 박희정(25·CJ), 김초롱(22), 이정연(27), 조영애(22) 등도 박세리와 함께 공동 10위에 포진해 선두권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앙스트라이커 안정환 유력 포워드엔 右천수-左주영 '째'

16일 대만전 '베어빅호 11' 누구 조재진 부상에 신영록 대체

'작은 황새' 조재진(25·시미즈)의 부상으로 오는 16일 대만과 2007 아시안 컵 예선 원정경기에 출전할 '베스트 일레븐'의 구성이 다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재 축구대표팀 미디어담당관은 11일 "조재진이 어제 일본에서 팀 훈련 도중 오른쪽 무릎 내측 인대를 다쳐 3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이날 회의에서 거쳐 10일 발표된 대만전 최종 엔트리 20명에서 탈락했던 신영록(수원 삼성)을 대체 요원으로 발탁했다. 우선 베어빅 감독은 태극호의 전술 밑그림을 '4-3-3'으로 맞박는 만큼 전형적인 스트라이커(3-top)으로 화력을 강화하고 미드필더진도 공격형을 두 명 내세우는 역삼각형 형태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따라서 조재진의 '타깃맨' 자리는 안정환이 대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른쪽 윙포워드에는 이천수(울산)가 자리를 '째' 했다. 왼쪽은 박주영(서울)이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K-리그 컵 대회 득점왕 최성국(울산)이 호시탐탐 자리를 넓히고 있다. 미드필더진에 공격형을 두 명 내세운다면 김두현(성남), 백지훈(수원)이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김남일(수원)이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운다면 김남일-이을용(서울), 김남일-김정우(나고야), 이을용-김정우 등 다양한 조합을 떠올릴 수 있다. 측면 수비수로는 왼쪽에 장학영(성남), 오른쪽에 송중국(수원)이 배치될 전망이다. 중앙수비수에는 월드컵 패처럼 김영철(성남), 김진규(이와타) 조합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메이저리거 3인방 이틀간격으로 등판

장출혈로 잠시 쉬었던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12일 오전 9시5분(이하 한국시간) 텍사스주 휴스턴 미네이더스파크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방문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른다.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은 14일 새벽 4시5분 콜로라도주 덴버 쿼서필드에서 열리는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8승에 도전한다. 허벅지 통증을 호소한 서재응(29·렘폰베이 데블레이스)은 한 경기 미뤄진 16일 오전 8시15분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예정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출격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英 프리미어리거 3인방 오늘밤 나란히 출격할 듯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이영표(29·토트넘 핫스퍼), 설기현(27·레딩 FC) 등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거 3인방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일제히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른다. 박지성은 12일 밤 11시(이하 한국시간) 홈 구장 울드 트래포드에서 열리는 스페인 세비야와 평가전에 출격 대기 중이다. 역시 프리미어리거 2번째 시즌을 맞는 이영표는 같은 시각 스페인 레알 소시에다드와 마지막 평가전을 가진다. 프리미어리거 데뷔를 앞두고 최근 3경기 연속골 행진 등 연일 신들린 듯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스나이퍼' 설기현도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잡았다. 그동안 평가전에서 비교적 약체들을 상대해 온 레딩은 이날 같은시간 네덜란드 강호 페예노르트와 시즌 개막 전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2일(토)
 - ▲메이저리거(샌디에이고-휴스턴)(08:55·Xports)
 - ▲봉황대기 고교야구(13:00·KBS SKY SPORTS)
 - ▲월드리그 국제배구(한국-이집트)(13:55·KBS1)
 - ▲프로야구(한화-LG)(18:00·KBS

- SKY SPORTS), <삼성-현대>(18:00·SBS 스포츠), <롯데-두산>(18:30·MBC ESPN)
- ▲토트넘 핫스퍼 클럽대항 친선축구(토트넘-레알소시에다드)(22:50·Xports)
- 13일(일)
 - ▲PGA투어 디 인터네셔널 3R(04:00·SBS 스포츠)
 - ▲메이저리거(캔자스시티-클리블랜드)(07:55·Xports)
 - ▲K-1(11:00·MBC ESPN)